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양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이강진 장로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6-7 인 도 자
 찬 송 440(497) 다 함 께
 기 도 김웅기 집사
 성 경 계 3:7-13 인 도 자
 흥해작전 승전보고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칭찬만 받은 교회!" ... 설 교 자
 * 찬 송 353(39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황재연 권사
 성 경 뱀전 2: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인의 성숙"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장석남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운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제1권사회 월례회 / 25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 제2권사회 6월 기도회 및 월례회 / 25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전도위원회(선교회장, 전도회장)회의 / 25일(주) 오후1시 202호

◆ 알 림

-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디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최용준(한방), 김동준(내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맥추감사절 /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 서장원 목사 소개**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M.Div., Th.M.), 영국 에딘버러대 신학교 (Ph.D.과정 수료)
에딘버러대학교 역사신학전공,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대원(Ph.D.)
(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 (현)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장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27명	281명	255명	1,363명	17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1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18일	헌금 입금	15,636,450	
"	특별예배비		1,000,000
"	선 교 비		300,000
"	구 제 비		1,350,000
"	경 조 비		70,000
"	출 판 비		270,000
"	인 건 비		11,044,400
"	도서인쇄비		1,460,000
"	소모품비		305,000
"	통 신 비		1,209,200
"	복리후생비		118,700
"	수도광열비		2,200
"	수선유지비		3,525,000
"	식당운영비		846,000
"	합 계	15,636,450	21,500,500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회의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오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가진 자들, 늘어난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